

피플 >

심장마비 캐나다 남성 구한 40代...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남고 싶어"

조선일보 | 홍준기 기자

🔖 ✉ 📄 🗂

💬 22

❤️ 0

f 37

🐦

📄

URL

입력 2011.04.18 03:01 | 수정 2011.04.18 17:32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 "나도 망설임 어둠 중 한명"

지난달 6일 오후 6시쯤 인천국제공항 2층 북동 한국과 **중국** 등을 오가며 무역 일을 하는 40대 **캐나다인** 노버트 퍼트케는 화장실 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느꼈다. 심장이 약한 그는 심장마비 증세가 온 것을 직감했다.

가슴을 울려주고 "헬프 미(Help me)"라고 했지만 바쁘게 오가는 수십 명의 승객은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다.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7년째 검역관으로 근무하는 수의사 **성진환**씨는 복도를 걷다 퍼트케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직도 안해보셨어요? - 생일, 성별만으로 바로 확인

생보사 가입 1위 (17.12 금감원 통계) 삼성 생명의 인터넷 연금저축보험(변동금리)

direct.samsunglife.com



주식할때 절대 하지 말아야



성진환씨 / 인천=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솔직히 '모른 척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응급처치 전문가도 아닌 내가 나섰다가 이 남자가 죽으면 내 책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이런 생각도 잠시, 성씨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두 손을 깎지 끼고 퍼트케의 가슴을 눌렀다. 5분쯤 지나자 얇은 숨을 내쉬었다. 의식을 회복한 퍼트케는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성씨는 "나는 미스터 성"이라고만 하고 떠났다.

캐나다로 돌아간 그는 인천공항에 문의해 성씨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다. "당신 덕에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이메일을 보냈으나 성씨는 "그냥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남고 싶다"며 한사코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 퍼트케씨는 이 사연을 [조선일보](#)사로 알려왔고 본지 취재팀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성씨를 찾았다. 성씨는 "나 역시 '엉뚱한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생각에 망설였던 사람"이라며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알려지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